

기본소득의 실재를 찾기 위한 여정

김민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강사로 재직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들어오기 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3년 남짓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지역사회 주민, 취약계층 등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을 떠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 것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다는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접한 후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자리 잡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저의 석사학위논문이었습니다. 저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거나 실험을 하기 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분석들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영구배당기금을 통해 주민들에게 천연자원의 수익이 배당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되는 것은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원 마련은 기본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로 구분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에 대해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은 그 효과가 긍정적일 때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기본소득의 실증적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거 청년배당)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배당의 효과성을 청년의 삶의 만족도로 살펴본 결과,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받은 집단은 다른 지역에서 청년배당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단 간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결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기본소득 도입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점점 깨닫고 있지만, 미래의 사회보장의 모습으로서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 자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해 보는 것이 개인적인 연구에 대해 희망하는 방향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은 청년들의 삶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청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본다면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 유일하게 대부분의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배당기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천연자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영구배당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래스카의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본소득 연구자들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보장의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에 미력하지만 있는 힘껏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연구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